

U-20 여자축구 “오빠들보다 낫네”

강호 독일 1-0으로 잡아파란 10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입 콜롬비아와 8강행 다툼

한국이 2024 국제축구연맹(FIFA) 콜롬비아 20세 이하(U-20) 여자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독일을 잡아 이번을 쓰면서 극적으로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박윤정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대표팀은 8일(한국시간) 콜롬비아 보고타의 메트로폴리타노 데 테초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D조 3차전에서 독일을 1-0으로 꺾었다.

1차전에서 나이지리아에 0-1로 패하고, 2차전에서 베네수엘라와 득점 없이 비긴 한국은 3위(1승 1무 1패-승점 4)골득실 0로 조별리그를 마쳐 최종적으로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24개국이 출전한 이번 대회는 4개 팀씩 6개 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른 후 각 조 1, 2위와 조 3위 6개국 중 상위 4개국이 16강에 올라 우승을 다툰다.

한국보다 성적이 좋은 A조 3위 카메룬(승점 4골득실 +1), B조 3위 캐나다(승점 4골득실 +5)가 16강행을 확정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C, F조 3위 팀과 남은 2장의 티켓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이었다. 독일전 직후 열린 C조 경기에서 3위 팀



한국 대표팀이 8일(한국시간) 콜롬비아 보고타의 메트로폴리타노 데 테초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D조 3차전에서 독일을 1-0으로 꺾고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득점 후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파라과이(1승 2패-승점 3)가 미국에 0-7로 크게 패해 승점이 3에 머무르면서 F조 결과와 관계 없이 우리나라에도 16강행 티켓이 돌아갔다.

D조 최강으로 평가받은 독일은 베네수엘라전(5-2), 나이지리아전(3-1)까지 2연승을 거뒀으나 우리나라에 일격을 당해

쓴맛을 봤다. 독일(골득실 +4)과 최종전에서 베네수엘라를 3-0으로 격파한 나이지리아(골득실 +2)이상 2승 1패-승점 6는 조 1, 2위로 16강에 진출했다.

박윤정 감독 체제로 세계 무대에 도전한 우리나라는 16개국 체제로 진행된

2014 캐나다 대회(8강 진출) 이후 처음으로 조별리그 통과라는 성과를 냈다.

조별리그 대진상 박윤정호의 16강 상대는 3전 전승으로 A조 1위를 차지한 콜롬비아로 예상된다.

이날 한국은 한 수 위 전력으로 평가된 독일이 수비진을 전방까지 끌어올린 틈

을 타 초반부터 상대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려 했다.

전반 22분 이 같은 전략이 결실을 봤다. 공격수 전유경이 후방으로 내려와 우서빈(이상 위덕대)이 찬 킥을 전방으로 떨구었다.

이를 받아낸 박수정(울산과학교대)에게 상대 골키퍼와 일대일 기회가 찾아왔고, 박수정이 침착한 마무리로 골망을 흔들었다. 이번 대회에서 터진 한국의 첫 골이었다.

기선을 제압당한 독일은 후반 들어 공세를 펴부으며 만회골을 노렸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수들의 육탄 방어로 경기가 끝날 때까지 추가 득점에 실패해 고개를 떨궜다.

경기 후 박윤정 감독은 “선수들이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간절하게 뛰었다”며 “독일이 잘하는 걸 막고자 한 게 효과를 봤다”고 평가했다.

결승골을 터뜨린 박수정은 “승점이 꼭 필요한 경기에서 공격수로서 득점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독일의 카트린 페터 감독은 “상대가 열심히 했고 초반부터 어려운 경기를 했다. 우리가 정교하지 못했고 몇 차례 실수도 했다”며 “후반에는 우리가 더 좋은 경기를 했지만 결국 이렇게 끝났다.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한국계 페굴라 잡고 사발렌카 우승 축배

US오픈 테니스 여자 단식 정상

아리나 사발렌카(2위 벨라루스·사진)가 US오픈 테니스 대회(총상금 7500만 달러, 약 1000억 원) 여자 단식을 제패했다.

사발렌카는 8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 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대회 13일째 여자 단식 결승에서 제사가 페굴라(6위 미국)를 2-0(7-5, 7-5)으로 물리쳤다.

올해 호주오픈에서 우승한 사발렌카는 개인 통산 세 번째 메이저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는 준우승했던 사발렌카는 우승 상금 360만 달러, 한국 돈으로 48억2000만 원을 받았다.

사발렌카는 이번 우승으로 2016년 안젤리크 케르버(독일) 이후 8년 만에 하드 코트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과 US오픈 여자 단식을 한 해에 석권한 선수가 됐다.

특히 사발렌카는 2023년과 올해 하드코트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 US오픈에서 27승 1패를 기록하는 절대 강세를 보였다. 유일한 1패는 지난해 US오픈 결승에서 코코 고프(3위 미국)에게 당한 것이다.

2022년 이가 시비오테키(1위 폴란드) 이후 2년 만에 한 해에 메이저 대회 단식에서 2회 이상 우승하는 기록도 남겼다.

2023년 호주오픈에서도 우승한 사발렌카는 현역 선수 가운데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 4위(3회)가 됐다.

현역 최다는 7번 우승한 비너스 윌리엄스(83위 미국)고 그 뒤를 5회의 시비오테키, 4회의 오사카 나옴이(88위 일본)가 잇는다.

사발렌카는 페굴라와 상대전에서 6승 2패로 격차를 벌렸다. 8월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신시내티오픈 결승에 이어 최근 2연승을 거뒀다. 사발렌카는 1세트 게임스코어 5-2로 앞서다가 5-5로 따라잡혔고, 이어진 자신의 서브 게임에서도 브레이크 포인트를 허용했다. 네 번의 듀스 점전 끝에 서브 게임을 지켜 한숨을 돌린 사발렌카는 곧바로 다음 페굴라의 서브 게임을 똑같이 네 번의 듀스 끝에 브레이크하며 1세트를 선취했다.

NC 요키시, 3연속 승리·2연속 QS ‘펼펼’

공룡 유니폼을 입고 한국 프로야구에 돌아온 에릭 요키시(35·NC 다이노스·사진)가 팀의 기대에 차츰 부응하고 있다.

요키시는 7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전에서 6이닝 3피안타 4볼넷 4탈삼진 1실점(1자책) 후투로 시즌 3승(2패)째를 거뒀다.

지난달 9일 악몽 같았던 KBO리그 복귀전을 통해 바닥을 찍고 거침없이 상승하는 모양새다.

요키시는 LG 트윈스를 상대로 한 복귀전에서 1회에만 8안타(2홈런)를 맞고 10실점을 했다.

요키시는 타자 일순하며 오스틴 던에게

홈런을 두 방 맞았는데, 한 이닝에 한 타자가 동일 투수를 상대로 연타석 홈런을 때린 것은 KBO리그에서 처음 나온 기록이었다.

요키시는 옛세 뒤 SSG 랜더스전에서도 4⅓이닝 6피안타(2홈런) 3볼넷 4탈삼진 4실점으로 고전하며 두 경기 연속 패전을 떠안았다.

하지만 무의미하게 흘러보낸 시간은 아니었다. 1년 넘는 공백기를 지낸 요키시로서는 실전 감각을 되찾는 소중한 시기였다.

요키시는 KBO리그 5년 차였던 지난해 6월 왼쪽 허벅지 근육 파열로 친정팀 키

움 히어로즈로부터 방출됐고, 이후 개인 훈련에 전념해왔다.

그렇게 두 번의 예방 주사를 따끔하게 맞은 요키시는 지난달 20일 세 번째 등판인 한화 이글스전에서 4⅓이닝 1실점으로 반동의 신호탄을 쏘고 이후 3경기 연속 승리를 챙겼다.

특히 9월에 치른 두 경기에서는 나란히 6이닝 1실점(1자책)을 기록하며 퀄리티 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내)를 수확했다.

8월 4경기에서 0.354였던 피안타율을 9월 2경기 0.125로 극적으로 낮췄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실전 마운드에 적응하면서 자연스레 이닝-투구 수가 늘어나고 타자들을 맞혀 잡는 경기 운영 능력도 되살아나는 것이다.

요키시는 구단을 통해 “최근 3경기에서 몸이 완전히 적응한 듯한 기분이 든다. 그 점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요키시는 “남은 경기에서 많은 이닝을 소화하고 짧게 이닝을 끝내 야수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면서 “앞으로도 팀 승리에 기여하는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인권 NC 감독도 “요키시가 6이닝 1실점을 기록하며 선발로서 좋은 모습으로 승리에 기여했다”고 칭찬했다.



WANNA RISE?

ALCOBAÇA Stream
DOUBLE WAVE



WANNA SPIN?

Ray SX-ZERO



RomaRo

(주)유니스골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89-5 인스코빌딩 문의전화 031)726-0085